

K B S S O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III

N A T A L I E

KBS교향악단 X 나탈리 드세이

2025. 11. 13. THU 20:00

롯데콘서트홀

지중배(지휘), 나탈리 드세이(소프라노), 필립 카사르(피아노)

“수신록의 기적, 강릉으로 전합니다!”

D E S S A Y

PROGRAM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모차르트 W. A. Mozart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K.492 - 서곡 <i>Le nozze di Figaro, K.492 - Overture</i>	4'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콘서트 아리아 K.505 "그대를 잊으라니요?" <i>Concert Aria K.505 "Ch'io mi scordi di te?" for Soprano, Piano and Orchestra</i>	10'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D장조, K.382 <i>Rondo for Piano and Orchestra in D Major, K.382</i>	10'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i>Selections from <Le nozze di Figaro></i>	
	"드디어 순간이 왔도다... 어서오라, 늦지 말고" (수잔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i>"Giunse alfin il momento...Deh vieni non tardar"</i> (Susanna's Recitativo and Aria)	5'
	"사랑을 주소서" (백작부인 아리아) <i>"Porgi amor"</i> (Countess's Aria)	3'
	"그리운 시절은 가고" (백작부인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i>"Dove sono i bei momenti"</i> (Countess's Recitativo and Aria)	7'
	인터미션 Intermission	20'
엔타일 G. Antheil	장미 정령의 왈츠 <i>Spectre of the Rose Waltz</i>	4'
메노티 G.C. Menotti	오페라 <영매> 중 '모니카의 왈츠' <i>'Monica's Waltz' from the Opera <The Medium></i>	6'
바버 S. Barber	녹스빌: 1915년의 여름 <i>Knoxville: Summer of 1915</i>	16'
프레빈 A. Previn	오페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 '난 마법을 원해요' <i>'I want magic' from the Opera <A Streetcar named Desire></i>	6'

① 총 소요시간 : 약 115분 (인터미션, 무대전환 시간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지중배

J O O N G B A E J E E
C O N D U C T O R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인 지휘자 지중배는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서울대학교 및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였다. 그는 독일 울름 시립극장 및 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 독일 트리어 시립극장 및 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와 부 음악총감독을 역임하며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독일 음악협회 선정 “미래의 거장” 10인에 이름을 올린 그는 정부 산하 독일 음악협회의 지휘자 포럼 멤버로서도 활약했다. 유카-페카 사라스테, 마르크 알브레히트, 윤 메르클, 에리 클라스, 시안 에드워즈 등 세계적인 거장들에게 사사했으며, 특히 핀란드 출신의 사라스테와의 인연으로 2014년부터 그의 개인 보조지휘자로 활동하며 깊은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

2012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독일 오페레타상 지휘자상을 수상, 부상으로 라이프치히 오페라의 슈트라우스 「박쥐」를 지휘하였다. 같은 해 오퍼 오더-슈프레 오페라 페스티벌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독일 정부 후원으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유라시아 친선특급 폐막음악회에서 한국-독일 연합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그는 WDR 심포니, MDR 심포니, 보훔 심포니, 뉘른베르크 심포니,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바덴-바덴 필하모니,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등 유럽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국내에서는 KBS교향악단 교향악 축제,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경기필, 대전·대구·부산·울산시향, 부산심포니 등 주요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가졌다. 또한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유니버설발레단 등과 다수의 프로덕션을 함께했다.

바로크와 원전연주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그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음대와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독일 여러 교향악단과의 지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OONGBAE JEE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

NATALIE DESSAY
SOPRANO

나탈리 드세이는 데뷔 직후부터 세계 주요 무대에 출연하며 블론드헨, 밤의 여왕, 파미나 등 모차르트 오페라 배역과 피아커밀리, 체르비네타, 조피 등 슈트라우스 오페라 배역을 맡았다. 커리어 동안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은 물론 빈 국립 오페라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바르셀로나 리세우,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정기적으로 출연했다. 드세이는 오페리아, 민카, 라크메, 올림피아, 질리엣, 마농 등 프랑스 작품의 배역을 훌륭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몽유병자>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의 벨칸토 오페라에서 성공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특히 후자의 주인공 역할로 시카고 오페라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 연기하고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녹음하기도 했다. 로랑 펠리가 연출한 <연대의 딸>에서는 마리 역을 맡으며 코벤트 가든, 빈 국립 오페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파리 국립 오페라 무대에 올랐다.

드세이는 도쿄,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빈 오페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을 연기해 매회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후 드세이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연대의 딸>의 마리 역을, 툴루즈의 카피톨 극장에서 마농의 주역을 다시 연기하기도 했다.

나탈리 드세이는 지휘자 에마뉘엘 하임을 만나 헨델의 작품에 출연하기 시작해,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 <줄리오 체사레>의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았다.

드세이는 미셸 르그랑과 함께 유럽과 남미 투어를 진행했고, <Entre elle et lui>(에라토)와 <Between yesterday and Tomorrow>(소니) 등 두 장의 음반을 녹음했다. 2012년부터 호흡을 맞춰 온 피아니스트 필립 카사르와는 뉴욕 카네기 홀, 보스턴 조던 홀, 런던 바비칸 센터, 도쿄 산토리 홀,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콘서트홀, 파리 상젤리제 극장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120회 이상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두 아티스트의 협업은 <Debussy>(에라토), <Fiançailles pour rire>(에라토), <Schubert>(소니) 등 세 장의 음반 발매라는 결실로도 이어졌다. 드세이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궁정가수로 임명되었다.

나탈리 드세이는 수 년 전부터 연극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투르의 올림피아 극장에서 하워드 바커의 독백극 <Und>로 연극에 데뷔해 극찬을 받은 후, 파리의 아베스 극장과 드자제를 비롯해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 같은 작품을 올렸다. 2018년 7월에는 아비뇽 페스티벌에 참석해 몽파르나스 극장에서 슈테판 츠바이크의 <한 생애의 전설>을 공연했다.



© Simon Fowler

NATALIE DESSAY

피아노 필립 카사르

PHILIPPE CASSARD
PIANO

필립 카사르는 도미니크 메를레와 제네비에브 조이와 함께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수학하며 1982년에 피아노와 실내악 부문에서 1등상을 차지했다. 이후 빈 국립 음악대학에서 2년간 학업을 이어가며 전설적 피아니스트 니키타 마갈로프를 사사했다. 1985년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결선에 진출했고, 1988년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카사르는 런던 필하모닉, 버밍엄 시립교향악단, BBC 필하모닉,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덴마크 방송교향악단 등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의 협연 초청을 받아 네빌 마리너 경, 마렉 야노프스키, 로저 노링턴 경, 샤를 뒤투아, 안 파스칼 토르텔리에, 아르민 조르당, 토마스 행엘브로크,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등의 지휘자와 연주했다.

1993년부터 필립 카사르는 하루 동안 네 번의 독주회를 개최하며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 전집을 연주하는 기획을 선보였다.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시작해 파리, 리스본, 더블린, 시드니, 도쿄, 밴쿠버에서 이어진 이 공연은 매회 큰 성공을 거두었다. 드뷔시 전집 음반은 1994년 그랑프리 뒤 디스크를 수상했으며, 2012년 데카 레이블에서 재발매되었다.

카사르는 실내악과 성악에 대한 애정으로 크리스타 루트비히, 카린 데예, 볼프강 홀츠마이어, 사무엘 하셀호른, 미셸 포르탈, 다비드 그리말, 안느 가스티넬, 세드릭 페시아 등의 연주자와 에벤, 모딜리아니, 에르메스 콰르텟과 함께 연주했다.

카사르는 나탈리 드세이와 듀오를 결성해 2012년부터 세계 유수의 명망 높은 콘서트홀에 120회 이상 출연했다. 두 아티스트의 협업은 세 장의 음반(<Debussy>, <Fiançailles pour rire>, <Schubert>)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40장이 넘는 카사르의 음반 가운데 특히 슈베르트 작품의 녹음은 전 세계적 호평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년에 발매된 베토벤 트리오 음반은 디아파중 황금상, 텔레라마 ㎱와 클라시카 쇼크상을 수상했다. 카사르는 프랑스 뮌지크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650회 이상의 방송을 진행해오며 가장 인기 있는 진행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슈베르트와 드뷔시에 관한 두 권의 에세이(Actes Sud 출간)와 회고록(<작은 터치로>, Mercure de France 출간)을 펴내기도 했다.



PHILIPPE CASSARD

PROGRAM NOTE



글 | 오주영 (음악 칼럼니스트)
번역 | 조원정

국제적인 무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오페라 하우스들을 누비며 눈부신 커리어를 쌓은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는 이번 연주에서 오랜 음악 동반자인 피아니스트 필립 카사르와 함께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다. 오늘 공연은 두 예술가의 마지막 무대이자, 올해로 예수를 맞은 나탈리 드세이의 새로운 예술적 여정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디바 중 한 명인 나탈리 드세이가 작별을 고하는 무대에서 전반부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콘서트 아리아 K.505 "그대를 잊으라니요?"로 구성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특히 콘서트 아리아 K.505는 모차르트와 각별한 사이였던 빈의 프리마돈나 낸시 스토라체(Nancy Storace)를 위해 작곡된 아리아로, 당시 그녀는 빈을 떠나 런던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모차르트가 남긴 악보의 문구에서 그가 얼마나 낸시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지 또 이 우정을 소중히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수잔나였던 그녀

낸시 스토라체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초연에서 수잔나를 맡았던 소프라노였다. 런던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시절부터 노래 신동으로 유명했다. 이태리로 건너간 그녀는 곧 주요 도시들을 섭렵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당찬 성격이 큰 역할을 했다. 이를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피렌체 극장에서 노래할 때, 그녀는 조역이었고, 주인공 공은 마르케지라는 스타 카스트라도였다. 그는 마지막 음을 특유의 기교로 마무리했는데, 그게 어찌나 청중을 매혹시켰는지 그 부분은 '마르케지의 봄바(폭탄)'로 불렸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낸시가 노래할 순서였다. 그녀는 당돌하게도 그 봄바를 똑같이 노래했다.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가 이어졌다. 마르케지는 격분했고, 낸시는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도 봄바를 보여줄 권리가 있다며 맞받아쳤다. 결국 그녀를 자르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겠다는 마르케지의 엄포에 그녀는 피렌체 극장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녀는 이탈리아 주요도시를 석권했다. 이는 당시 겨우 15세였던 소녀가 거둔 쾌거였다.

사랑하는 이여, 두려워 말아요. 내 마음은 항상 당신을 향할 거예요.

이 크나큰 고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 내 영혼이 스러질 것 같네요.

한숨 쉬나요? 오, 압울한 고통이여! 지금이 어떤 순간인지 생각을 해봐요! 오, 신이시여!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대를 잊으라니요" 가사 일부

für Mad : selle storace und mich.
Composto per la Signora Storace dal suo servo e amico W. A. Mozart.
마드무아젤 스토라체와 나를 위해.
스토라체 양을 위해 그녀의 하인이자 벗인 모차르트가 작곡함.

그림 "그대를 잊으라니요?" 악보 위
모차르트가 자필로 남긴 글귀



황제의 제안으로 빈에 입성하게 된 18세의 낸시는 빈의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특히 희극에 특화된 그녀의 재능은 모차르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성격과 재능이 완벽하게 반영된 역할이 바로 '피가로의 결혼' 속 수잔나였다. '명랑하고, 영리하며, 재치가 넘치면서도 매혹적인 하녀' 수잔나는 낸시 그 자체였던 것이다.

'피가로의 결혼'은 단순한 희극을 넘어, 당시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극중에서 수잔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하녀이기도 했지만, 당시 프리마돈나의 삶 또한 온당한 대우가 따라온 것은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만, 그녀들의 사생활은 가쉽거리가 되어 소비되었다. 낸시는 각종 추문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1785년 무대 위에서 목소리를 잃는 최악의 순간까지 맞게 되었다. 낸시가 수잔나를 만난 시기는 가수와 여인으로서 한꺼번에 닥친 모든 위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난 후였다. 귀족의 억압적인 권력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랑과 결혼의 자유를 쟁취하는 수잔나를 통해 어쩌면 낸시는 자신과 동일시함과 동시에 활력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위기를 겪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는 낸시 역시 모차르트가 수잔나라는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수잔나에서 백작부인까지, 여인의 사랑과 생애

오늘 우리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수잔나의 대표 아리아 "드디어 순간이 왔도다"와 백작부인의 두 아리아 "사랑을 주소서" 그리고 "그리운 시절은 가고"를 연달아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됐다. 많은 소프라노들이 젊은 나이에는 수잔나를 노래하고 연륜이 쌓이면 백작부인으로 변모하곤 한다. 마치 '세비야의 이발사' 속 주인공 로지나가 알마비바 백작과 결혼에 골인해서 그 속편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백작부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의 무대 또한 나탈리 드세이라는 관록의 가수를 통해 이러한 흐름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드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피가로의 결혼'에서 수잔나가 활기찬 영리함을 뽐낸다면 '세비야의 이발사' 속에서는 로지나가 비슷한 성격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작자 보마르세는 속편 '피가로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 혁명의 조짐이 보이던 그 시기에 보마르세의 신작에서는 새로운 계급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했다. 그 주인공 자리는 단연 하인인 피가로와 그의 아내가 될 하녀 수잔나의 것이었다. 수잔나가 빛날수록 이제 지배계급이 된 (현)백작부인, (구)로지나의 고독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케루비노가 흠모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여인이다. 오늘 소개되는 백작부인의 두 아리아는 떠나버린 사랑에 대해 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우아한 품격을 보여주는 여인을 보여줄 것이다.

모차르트가 그의 수잔나, 낸시에게 작별을 고하듯이 음악의 정직한 전달자이자 친구였던 나탈리 드세이가 오늘 서울 관객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드세이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 올린 빛나는 음악 여정은 불멸의 명반, 그리고 그녀의 혼신의 연기가 담긴 영상물 등으로 남아있다. 오늘 그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아리아 제목처럼 그녀를 배웅하고 싶다.

"그대를 잊으라니요?... 어떻게 그대를 잊겠습니까?"



그림 '피가로의 결혼'의 두 여인, 수잔나와 백작부인
시를 활용한 이미지 재구성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K.492 - 서곡

Le nozze di Figaro, K.492 - Overture

1786년 5월 1일, 빈 부르크 극장에서 초연된 모차르트의 코믹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당시 유럽 사회의 귀족 풍자와 계급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오페라의 문을 여는 서곡은 본 공연의 소란스럽고도 활기찬 분위기를 완벽하게 예고한다. 4분동안 몰아치는 빠른 템포의 서곡은 이 오페라의 원제가 “피가로의 결혼 혹은 어느 미친 하루”였음을 상기시키며, 생략된 뒷부분을 이보다 더 잘 그려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콘서트 아리아 K.505 “그대를 잊으리요?”

Concert Aria K.505 “Ch’io mi scordi di te?” for Soprano, Piano and Orchestra

1786년 겨울 빈에서,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의 초연 수잔나였던 낸시 스토라체를 위해 이 아리아를 썼다. 텍스트는 오페라 ‘이도메네오’에서 차용했으며, ‘레치타티보-론도’로 구성되었다. 그렇기에 길이도 10분이 넘으며, 단순히 하나의 ‘아리아’가 아니라 인물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미니 모노 오페라라고도 볼 수 있다. 독창과 피아노가 때로는 경쟁하듯, 때로는 위로하듯 긴밀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관현악은 실내악적 음영으로 두 주인공을 감싼다.

Recitativo:
Ch'io mi scordi di te?
Che a lui mi doni
Puoi consigliarmi?
E puoi voler che in vita...
Ah no.
Sarebbe il viver mio
Di morte assai peggior.
Venga la morte,
Intrepida l'attendo.
Ma, ch'io possa struggermi ad altra face,
Ad altr'oggetto
Donar gl'affetti miei,
Come tentarlo?
Ah! di dolor morrei.

레치타티보:
당신을 잊으라고요?
어떻게 그에게 날 바치라
조언할 수 있죠?
당신이 원하는 건 살면서...
아, 아니.
그런 삶은
죽음보다 훨씬 끔찍해요.
죽음이여, 내게 와요.
두려움 없이 기다리리라.
하지만 내 사랑을
다른 열정에 맡기라고,
다른 이에게 주라고,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 난 고통으로 죽을 거예요.

Aria:
Non temer, amato bene,
Per te sempre il cor sarà.
Più non reggo a tante pene,
L'alma mia mancando va.

아리아:
사랑하는 이여, 두려워 말아요
내 마음은 항상 당신을 향할 거예요.
이 크나큰 고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
내 영혼이 스러질 것 같네요

Tu sospiri? o duol funesto!
Pensa almen, che istante è questo!
Non mi posso, oh Dio! spiegar.
Stelle barbare, stelle spietate!
Perchè mai tanto rigor?

숨 쉬나요? 오, 암울한 고통이여!
지금 이 어떤 순간인지 생각을 해봐요!
오, 신이시여!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잔인한 별들이여, 무정한 별들이여!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Alme belle, che vedete
Le mie pene in tal momento,
Dite voi, s'egual tormento
Può soffrir un fido cor?

이 순간 내 고통을 보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여,
말해 보세요, 신실한 마음이
이런 고통을 감내해도 될까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D장조, K.382

Rondo for Piano and Orchestra in D Major, K.382

1782년 3월 빈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잘츠부르크를 떠나 빈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은 모차르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곡이다. 1773년에 잘츠부르크에서 작곡한 D장조 피아노 협주곡 K.175에 플루트가 함께 하는 새로운 악장을 추가했는데, 이는 빈의 청중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당시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이 빈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빈에 정착하고 싶었던 모차르트의 간절한 소망은 그 해 7월 오페라 ‘후궁 탈출’이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실현된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Selections from <Le nozze di Figaro>

“드디어 순간이 왔도다... 어서오라, 늦지 말고” (수잔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Giunse alfin il momento... Deh vieni non tardar” (Susanna's Recitativo and Aria)

‘피가로의 결혼’ 4막 밤의 정원, 유혹과 오해, 그리고 깊은 신뢰가 교차하는 순간이다. 수잔나는 ‘편지 계략’의 일부로 이 세레나타를 부르는데, 알마비바 백작은 유혹에 넘어가고, 피가로는 이것이 수잔나의 진심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매혹적인 곡이다. 그만큼 수잔나의 재치, 여유, 사랑스러움을 이 아리아 안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섬세한 아리아는 ‘피가로의 결혼’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인간 감정의 미세한 결을 포착한 작품임을 증명한다.

Recitativo:
Giunse alfin il momento
che godrò senz'affanno
in braccio all'idol mio.
Timide cure, uscite dal mio petto,
a turbar non venite il mio diletto!
Oh come par che all'amoroso foco
l'amenità del loco,
la terra e il ciel risponda,
come la notte i furti miei seconda!

레치타티보:
마침내 고통 없이
내 사랑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순간이 왔네
소심한 걱정은 내 가슴에서 나가서
내 기쁨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곳의 아름다움이,
땅과 하늘이,
사랑의 불꽃에 응답하는 듯하네
나의 비밀스러운 순간을 밤이 돕는 듯하네!

Aria:
Deh, vieni, non tardar, o gioia bella,
vieni ove amore per goder t'appella,
finché non splende in ciel notturna face,
finché l'aria è ancor bruna e il mondo tace.
Qui mormora il ruscel, qui scherza l'aura,
che col dolce susurro il corri staura.

아리아:
아름다운 그대여, 부디 늦지 말아요
밤하늘에 빛이 밝아오기 전에
주변이 아직 어둡고 세상은 침묵하는 동안
사랑이 기쁨을 위해 당신을 부르는 곳으로 와요
여기선 시냇물이 속삭이고 산들바람이 장난치니
달콤한 속삭임에 마음은 힘을 얻어요

Qui ridono i fioretti e l'erba è fresca,
ai piaceri d'amor qui tutto adescas.
Vieni, ben mio, tra queste piante ascose.
Vieni, vieni!
Ti vo' la fronte incoronar di rose.

여기선 작은 꽃들 미소 짓고 풀들은 싱그러워요
여기선 모든 것이 사랑의 쾌락을 허락하네요
사랑하는 이여, 오세요, 이 감춰진 나무들 사이로
오세요, 오세요!
장미로 당신 머리에 관을 씌워드릴래요

“사랑을 주소서” (백작부인 아리아)
“Porgi amor” (Countess's Aria)

1막의 소란스러움은 2막이 시작하자마자 울리는 이 짧은 카바티나로 차분해진다. 이 아리아는 배신과 그리움 앞에서 품위로 버티는 로지나, 즉 백작부인을 보여준다. 긴 호흡으로 뻗어가는 선율, 절제된 반주, 꾸밈없는 화성 진행으로 고귀하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은 채, 사랑이 돌아오길 조용히 청한다.

Porgi, amor, qualche ristoro
al mio duolo, a' miei sospir.
O mi rendi il mio tesoro,
o mi lascia almen morir.

사랑의 신이여, 이 고통과 탄식에
안식을 주소서
내 님을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내게 죽음을 허락하소서

“그리운 시절은 가고” (백작부인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Dove sono i bei momenti” (Countess's Recitativo and Aria)

이 아리아는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처음 레치타티보에서는 수잔나에게 의지해야 하는 스스로의 처지를 비판한다. 이어지는 안단티노에서 백작부인은 한때의 행복을 떠올리지만 그럴수록 현재의 비참한 처지가 드러날 뿐이다. 마지막 알레그로는 희망을 품고 결단으로 향하는 그녀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 아리아는 현실을 비판하고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던 무기력한 로지나가 주도적인 백작부인으로 변신하는 전환점이다. 이 아리아와 함께 변화한 그녀는 이후 이어지는 유명한 ‘편지 2중창’에서 수잔나에게 편지를 쓰게 하며 피가 로와 수잔나가 꾸민 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Recitativo:
E Susanna non vien!
Sono ansiosa di saper
come il Conte accolse la proposta.
Alquanto ardito il progetto mi par,
e ad uno sposo sì vivace e geloso!
Ma che mal c'è?
Cangiando i miei vestiti con quelli di Susanna,
e i suoi coi miei
al favor della notte.
Oh cielo! A qual umil stato fatale
io son ridotta da un consorte crudel!
Che dopo avermi con un misto inaudito
d'infedeltà, di gelosia, di sdegni

레치타티보:
그런데 수잔나가 오지 않네!
백작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어서 알고 싶어.
계획이 좀 무모한 것 같아
게다가 남편은 잘 흥분하고 질투도 많은데!
그래도 뭐 어때?
밤을 빌어
나는 수잔나의 옷을,
그녀는 내 옷을 입을 것뿐
오, 하늘이여! 야비한 남편 때문에
어디까지 비참하게 추락했는지!
그는 전례 없이 부정하고
질투와 미움에 가득 차

prima amata, indi offesa, ed alfin tradita
fammi or cercar da una mia serva aita!

처음엔 사랑을, 그리고 모욕을 주더니, 결국 배신했고
이제는 하녀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드는구나!

Aria:
Dove sono i bei momenti
di dolcezza e di piacer,
dove andaro i giuramenti
di quel labbro menzogner?
Perché mai se in pianti e in pene
per me tutto si cangiò,
la memoria di quel bene
dal mio sen non trapassò?
Ah! Se almen la mia costanza
nel languire amando ognor,
mi portasse una speranza
di cangiar l'ingrato cor!

아리아:
달콤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그 아름답던 시절은 어디에 있나
그 입술의 거짓 맹세는
어디로 갔을까?
왜 내 모든 것이
통곡과 고통으로 바뀌었는데
사랑하던 이에 대한
마음속 기억은 떠나지 않았나?
아, 나의 한결 같은 마음이
매 순간 그를 사랑하며 고통받더라도
그 무정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엔타일 | 장미 정령의 왈츠
G. Antheil, Spectre of the Rose Waltz

후반부는 20세기 작곡가의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조지 엔타일(1900-1959)의 ‘장미 정령의 왈츠’는 영화 ‘장미 정령 Spectre of the Rose’(1946)을 위해 작곡된 음악 중 하나이다. 이 영화는 벤 헤흐트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작품으로 발레 무대를 배경으로 한 심리극이다. 할리우드에서 주목받는 영화음악 작곡가였던 엔타일은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고, 그 중 왈츠는 독립된 연주곡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메노티 | 오페라 <영매> 중 ‘모니카의 왈츠’
G.C. Menotti, 'Monica's Waltz' from the Opera <The Medium>

1946년 초연된 오페라 《영매(The Medium)》는 불가사의한 심령술을 다루는 어둡고 미스터리적인 작품이다. 메노티의 가장 널리 알려진 오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극 중 ‘모니카의 왈츠’는 주인공 바바(영매)의 양녀 모니카가 부르는 아리아로, 영매의 제자 토비와 함께 환상 속에서 춤을 추듯 노래하는 장면이다. 왈츠 특유의 부드럽고 매력적인 선율 위에,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면서도 불안한 기운이 배어 있다. 모니카와 토니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토니는 말을 할 수 없는 소년이다. 그런 토비 앞에서 모니카는 마치 인형극을 하는 양, 자신과 토비를 오가며 모노 드라마를 보여준다.

Bravo! And after the theatre, supper and dance
Music! Um pa pa, um pa pa...
Up in the sky, someone is playing a trombone and a guitar
Red is your tie, and in your velveteen coat, you hide a star
Monica, Monica, dance the waltz
Monica, Monica, dance the waltz
Follow me, moon and sun

브라보! 극장 다음에는 저녁 식사와 춤이지
음악! 음파파, 음파파...
하늘 위에선 누군가 트롬본과 기타를 연주해요
당신 넥타이는 붉은색, 벨벳 코트 속엔 별을 숨겼죠
모니카, 모니카, 왈츠를 춰요
모니카, 모니카, 왈츠를 춰요
달님과 해님이여 날 따라 해 봐요

Keep time with me, one two three one
 If you're not shy, pin up my hair
 with your star and buckle my shoe
 and when you fly, please hold on tight to my waist
 I'm flying with you, oh...
 Monica, Monica, dance the waltz
 Monica, Monica, dance the waltz
 Follow me, moon and sun
 Follow me, follow follow me
 Follow me, follow follow me
 What is the matter, Toby?
 What is it you want to tell me?
 Kneel down before me
 and now tell me
 Monica, Monica, can't you see
 That my heart is bleeding, bleeding for you?
 I loved you Monica all my life
 With all my breath, with all my blood
 You haunt the mirror of my sleep,
 you are my night
 You are my light and the jailer of my day
 How dare you, scoundrel, talk to me like that!
 Don't you know who I am?
 I'm the queen of croundel!
 I shall have you put in chains!
 You are my princess, you are my queen
 and I'm only Toby, one of your slaves
 and still I love you and always loved you
 With all my breath, with all my blood!
 I love your laughter, I love your hair
 I love your deep and nocturnal eyes
 I love your soft hands, so white and winged
 I love the slender branch of your throat
 Toby! Don't speak to me like that...
 You make my head swim
 Monica, Monica, fold me in your satin gown
 Monica, Monica, give me your mouth
 Monica, Monica, fall in my arms!
 Why, Toby. You're not crying, are you?
 Toby, I want you to know that you have
 The most beautiful voice in the world

나와 박자를 맞춰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부끄럽지 않다면 당신 별로 내 머리를 고정하고
 내 신발을 묶어줘요
 그리고 날아오를 때면 내 허리를 꼭 잡아줘요.
 당신과 함께 날아오를게요
 모니카, 모니카, 왈츠를 춰요
 모니카, 모니카, 왈츠를 춰요
 달님과 해님이여 날 따라 해 봐요
 따라해 봐요
 날 따라 해 봐요
 무슨 일이야, 토비?
 내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내 앞에 앉아봐.
 이제 말해봐.
 모니카, 모니카, 안 보여요?
 내 심장이 당신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이?
 나는 평생 모니카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의 숨과 피를 다 해서
 당신은 내 잠 속 거울에 나타나요,
 당신은 나의 밤이죠
 당신은 나의 빛, 내 삶의 간수죠
 어떻게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크라운델의 여왕!
 당신이 사슬에 묶이게 하겠어요!
 당신은 나의 공주, 나의 여왕
 나는 그냥 토비, 당신 노예 중 하나죠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고 항상 사랑할 거예요
 내 숨과 내 피를 다해서!
 당신의 웃음을, 당신 머리카락을 사랑해요
 당신의 밤처럼 깊은 눈을 사랑해요
 당신의 하얗고 날개 같은 부드러운 손을 사랑해요
 당신의 가냘픈 목을 사랑해요
 토비,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모니카, 당신의 새틴 드레스로 날 감싸줘요
 모니카, 당신의 입술을 줘요
 모니카, 내 품에 안겨요!
 왜 그래, 토비, 우는 거 아니지?
 토비,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바버 | 녹스빌: 1915년의 여름
 S. Barber, Knoxville: Summer of 1915

바버의 ‘녹스빌: 1915년의 여름’은 1947년, 시인 제임스 에이지(James Agee)의 산문시를 텍스트로 삼아 작곡한 작품이다. 바버가 어린 시절을 보낸 미국 남부의 기억과 향수가 배경에 깔려 있으며, “어느 여름 저녁, 가족이 집 앞에서 평화롭게 모여 있는 정경”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음악은 서정적인 선율과 인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버 특유의 고전적이면서도 미국적인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It has become the time of evening
 when people sit on their porches,
 rocking gently and talking gently
 and watching the street and the standing up
 into their sphere of possession of the trees,
 of birds' hung havens, hangers.
 People go by; things go by.
 A horse, drawing a buggy, breaking
 his hollow iron music on the asphalt;
 a loud auto; a quiet auto;
 people in pairs, not in a hurry,
 scuffling, switching their weight of aestival body,
 talking casually,
 the taste hovering over them of vanilla, strawberry,
 pasteboard and starched milk,
 the image upon them of lovers and horsemen,
 squared with clowns in hueless amber.

저녁때가 되어
 사람들이 집 앞에 앉아
 부드럽리 몸을 흔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거리를 바라보고 나무들과
 새들이 깃든 낙원, 동지들이
 그들의 영역 내로 드리워지는 것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만물이 지나간다.
 아스팔트 위로 덜컹거리며
 마차를 끌고 가는 말 한 마리,
 시끄러운 자동차, 조용한 자동차,
 짝지어 느긋하게 걷는 사람들은
 더위 먹은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여유롭게 이야기 나눈다
 그들 주변으로 맴도는 바닐라와 딸기,
 푸딩과 포장지의 맛.
 그들 위로 드리워진 연인들과 마부들의 모습이
 호박빛으로 누렇게 바랜 광대들이 겹쳐졌다

A streetcar raising its iron moan:
 stopping, belling and starting; stertorous; rousing
 and raising again its iron increasing moan
 and swimming its gold windows and
 straw seats on past and past and past,
 the bleak spark crackling and cursing above
 it like a small malignant spirit set to dog its tracks;
 the iron whine rises on rising speed;
 still risen, faints; halts; the faint stinging bell;
 rises again, still fainter, fainter,
 lifting, lifts, faints forgone: forgotten.

췌소리를 울리는 전차,
 멈추고, 종을 울리고, 다시 출발하고, 시끄럽게,
 점점 크게 췌소리를 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금빛 창문과 짙은 된 좌석을 싣고
 다시 저 멀리 저 멀리 미끄러져 간다.
 그 위로는 마치 작은 악령이 궤적을 쫓아가듯,
 음산한 불꽃이 저주하며 타닥거린다.
 끼익거리는 췌소리는 속도와 함께 높아진다
 더 높아지더니 희미해지고, 멈추고, 희미한 날카로운 종소리
 다시 높아지고 다시 희미해지고, 더 희미해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희미해진다, 사라진다. 잊힌다

Now is the night one blue dew.
 Now is the night one blue dew,
 my father has drained, now he has coiled the hose.

지금은 밤, 푸른 이슬 한 방울
 지금은 밤, 푸른 이슬 한 방울
 아버지는 지치셨고 이제는 호스를 감으셨다

Low on the length of lawns,
a frailing of fire who breathes ...
Parents on porches: rock and rock.
From damp strings morning glories hang
their ancient faces.
The dry and exalted noise of the locusts from
all the air at once enchants my eardrums.

On the rough wet grass of the backyard my father and
mother have spread quilts.
We all lie there, my mother, my father, my uncle,
my aunt, and I too am lying there ...
They are not talking much, and the talk is quiet,
of nothing in particular, of nothing at all in particular,
of nothing at all.

The stars are wide and alive, they seem each like a smile
of great sweetness, and they seem very near.

All my people are larger bodies than mine, ...
with voices gentle and meaningless like the
voice of sleeping birds.
One is an artist, he is living at home.
One is a musician, she is living at home.
One is my mother who is good to me.
One is my father who is good to me.

By some chance, here they are, all on this earth;
and who shall ever tell the sorrow of being on this earth,
lying, on quilts, on the grass, in a summer evening,
among the sounds of the night.
May God bless my people, my uncle, my aunt, my
mother, my good father,
oh, remember them kindly in their time of trouble;
and in the hour of their taking away.

After a little I am taken in and put to bed.
Sleep, soft smiling, draws me unto her:
and those receive me, who quietly treat me,
as one familiar and well-beloved in that home:
but will not, no, will not, not now, not ever;
but will not ever tell me who I am.

풀밭을 따라 낮게
숨쉬는 연약한 불꽃...
집 앞에 앉으신 부모님, 흔들흔들.
젖은 줄 위로는 나팔꽃들이
옛적의 얼굴을 내민다.
공중의 메뚜기들이 내는 건조하고 높은 소음이
한꺼번에 내 고막을 사로잡는다.

뒷뜰의 거칠고 축축한 잔디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비이불을 펼치셨다
우리 모두 거기 눕는다, 어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그리고 나도 거기 눕는다.
별 말은 많으시고 말소리도 나즈막하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으신다, 특별한 말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으신다. 전혀 하지 않으신다.

생생하고 드넓게 빛나는 별빛이 달콤한 미소 같고
아주 가까이 있는 듯하다.

우리 식구는 다들 나보다 몸집이 크고
목소리는 잠든 새소리처럼
의미는 없지만 정답다.
한 분은 함께 사시는 미술가 삼촌
한 분은 함께 사시는 음악가 고모
한 분은 날 아끼시는 어머니
한 분은 날 아끼시는 아버지

어쩌다 그들은 여기, 이 땅 위에 모두 있게 되었으나
누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슬픔에 대해 말해줄까
어느 여름 저녁, 밤의 소리 가운데 풀밭 위에,
누비이불 위에 누워있다.
신께서 우리 가족을, 삼촌, 고모, 어머니,
좋으신 아버지를 축복하시길.
오, 시련의 순간에, 그들이 떠나는 순간에
그들을 기억하시길.

얼마 후 나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신다
잠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날 그 속으로 끌어당긴다
그럼 그 분들이 조용히 날 맞아 주신다
그 집에서 아주 사랑받는 친밀한 가족처럼
하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누구인지는 결코 말해 주시지 않으리.

프레빈 | 오페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중 '난 마법을 원해요'

A. Previn, 'I want magic' from the Opera <A Streetcar named Desire>

테네시 윌리엄스의 동명 희곡을 바탕으로 작곡된 앙드레 프레빈(1929-2019)의 이 오페라는 1998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작곡가 본인의 지휘로 초연됐다. 주인공 블랑쉬는 무너져가는 환상에 매달려 현실을 외면하는 남부 출신의 귀부인이다. 그럴듯한 말투, 우아함,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지만 실상은 몰락한 삶과 남편의 자살에 대한 죄책감, 시들어가는 미모로 인한 공포 등이 그녀를 쪼먹고 있다. 3막에서 그녀는 현실의 잔혹함 대신 '마법 같은 환상'을 갈망하며 "난 마법을 원해요"라는 독백을 노래한다. "나는 마법을 원해... 진실이 아니라 '그래야 할 진실'을 원해"라는 가사는, 현실을 직면할 힘이 없는 그녀가 생존 도구로 선택한 것이 환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아리아는 붕괴 직전의 위태로운 그녀의 정신 세계를 가장 아름다운 자기기만의 순간들로 응축해 들려준다.

Real! Who wants real?
I know I don't want it. I want magic!
Magic! Yes!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try to give to people.
I do misrepresent things.
I don't tell the truth.
But I tell what ought to be the truth.
What it ought to be.
Yes, magic. Magic's what I try to give to people.
If that's a sin,
If that is such a sin, then let me be ...
damned for it!
Don't turn on that light!
It'll all look so ugly in that light.
Why not see by candlelight ...
or moonlight, or by starlight?
They are bright enough to see by.
Sometimes too bright.

사실! 누가 사실을 원하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마법을 원해요.
마법!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그거죠.
나는 사물을 왜곡해 보여주죠.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이여야만 하는 것을 말해요.
진실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름요.
그래요, 마법,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마법이죠.
그게 죄라면
그것이 죄와 같다면, 그럼 나를...
지옥에나 보내요!
불을 켜지 말아요!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추해 보일 거예요.
촛불 아래서 보는 게 어때요
아님, 빛이나 별빛 아래서는 어때요?
그 빛들도 꽤 밝아서 잘 보여요.
때로는 너무 밝죠.

**무대 밖에서도 이어지는 음악의 감동,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연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9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 02-6099-7400
- ☎ 02-6099-7416
- 🌐 www.kbssymphony.org

- 📘 facebook.com/kbssymphony
-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forever')
- 🎵 kbssymphonyorchestra
-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이유진 김시연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부수석)

악장	문바레니 WDR 쾰른 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제1바이올린	배창훈 ^{부수석}
플루트	조철희 ^{수석}
호른	Michal Emanovsky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인턴십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우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호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산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윤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윤도식 변호사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19TH INTERNATIONAL
FRYDERYK CHOPIN PIANO
COMPETITION WARSAW 2025

KBS S.O. 820TH



©Cindy McTee

지휘 레너드 슬래트킨

LEONARD SLATKIN
CONDUCTOR

피아노 에릭 루

ERIC LU
PIANO

2025. 11. 21. FRI 20:00

롯데콘서트홀

신디 매키티 / 순화, *한국 초연
C. McTee / Circuits *Korean Premiere

쇼팽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단조, 작품 21
F. Chopin /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11번 g단조, 작품 103 '1905년'
D. Shostakovich / Symphony No.11 in g minor, Op.103 'The Year 1905'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R 120,000 S 100,000 A 70,000 B 30,000 C 10,000 예매 NOLticket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Republic of Korea

